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

盧대통령, S프로젝트 구상 표명 주목

(서남해안 개발계획)

오늘부터 김대중센터

성공사례 113건 발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살기 좋은 지역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가 7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중앙 정부 14개 부처 장관과 전국 31개 지자체 단체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1천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다.

〈관련기사 5면〉

이날 개막식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개회사와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및 비전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지역혁신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혁신성공사례

를 창출한 113건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전시관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이 축사에서 전남 서남해안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은 보고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및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을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수도권권의 질적 발전, 낙후지역의 자립역량강화,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 전국에 4개의 초광역

경제권 구성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개막 마지막 행사인 참석 인사들의 전시관 참관은 개최 시·도인 광주시관(가사 도우미 로봇 시연), 전남도관(5개 지역 쌀구분 체험)에 이어 행사부의 살기좋은 지역관(살기좋은 지역 9개 모델), 산자부의 지역산업혁신관(이전기술 사업화 시범사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지역혁신 성공사례발표회 및 지역별 전시회, 지역혁신 관련 각종 회의, 지역투자유치 상담회 및 심포지엄 등이 열리며, 주최 측은 대회기간 동안 연인원 20만명이 대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고를 수놓은 은하수등

6일 광주시세계를 찾은 한 가족이 백화점 정문앞에 설치된 수만개의 은하수등 아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들은 예년보다 1개월 빨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였다. /N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효숙 동의안’ 15일 처리키로

與 “헌재소장 공백 더 미룰 수 없어”...민주·민노 공정 검토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당도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다'는 명분 아래 국회 인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무려 50여일 이상 끌었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도 오는 12~13일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책위의장은 6일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해결하려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15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김한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임체정 국회의장에 게도 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며 "청와대에서도 12일께 전씨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나타낸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도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으므로 본회의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최소한 권고적 당론 내지 자유투표 형식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준안 처리와 관련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는 절차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 참석에 과반 찬성 요건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열린우리당 140석에 민주당(12석), 민노당(9석) 의석을 합칠 수 있어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인준안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저지는 물론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위헌소송과 헌재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

금융당국 관계자 주말에 추가 영장

의환은행 '월값매각' 수사

의환은행 월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매각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성 감독·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주말에 관련자 2~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강민 전 행장의 배임 혐의에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기관 관계자도 연루돼 있느냐는 질문에 "의환은행 관계자 외에 공모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감독승인기관도 연결돼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분체 수사 등과 관련해 주말에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들은 이 전 행장의 범죄 혐의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저지는 물론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위헌소송과 헌재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

“부동산 안정에 역량 집중”

분양원가 공개 확대...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

盧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도시 주택 대량 단축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 및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주택금융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평화번영 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모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6자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할 소요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

후원대학 장학50% 학사비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062-970-5000-9

새로운 담사기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uc.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062-970-5000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예술극장

광주광역시 (062)220-6541, 1544-1216

ALL LASH MASCARA

LANEIGE

안경안착용

LANEIGE

안경안착용